

다음 내용을 따라서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해봅시다.(파란색 글씨를 읽으며 인도하면 됩니다.)

오늘 해야 할 일

1. 오늘부터 가족예배가 있는 날까지 매일 저녁 가족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 1) 온 가족이 함께 가족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게 해주세요.
- 2) 가족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게 해주세요.
- 3) 가족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 지혜를 주세요.

2. 이번 주간 가족예배 순서자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순서를 알려줍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가족들과 함께 순서를 정합니다.)

[기도] : 가족 구성원이 순서를 정해 돌아가면서 준비합니다. 순서자가 미리 기도를 준비하도록 인도자가 이야기 해줍니다. 기도내용은 순서지를 따라도 좋고, 순서자가 스스로 준비해도 좋습니다.

[말씀] : 가족 구성원이 순서를 정해 돌아가면서 준비합니다. 순서자가 미리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자 순서지를 보여주고 준비하도록 합니다.(인도자가 맡아서 해도 좋습니다.)

가족예배 10분전

예배 준비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에게 예배시간이 10분 남았음을 알려주고 함께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시작 10분 전에는 찬송가 연주를 틀어놓고 예배 장소를 세팅하여 가족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이에요. 하던 일을 멈추고 예배를 준비해요.]

가족예배 5분전

예배 장소 세팅이 끝났으면 성경책과 순서지를 준비하고 가족예배 장소에 모여서 각자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질 가족예배를 준비하며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사도신경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며 가족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 도

기도순서자가(아빠, 엄마, 동생, 나) 기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기도자가 되어 기도를 준비합니다. 순서지에 있는 내용 또는 기도자가 준비한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찬 송

함께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반주에 맞추어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음원 파일을 준비해서 보내드립니다.

말 씬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1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로마서 8장 14-18절]

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1:12)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큰 특권이며 행복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됨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 되길 바랍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축복.

필요한 것이 있을 때나 문제가 생겼을 때 아빠! 하고 부르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 사이에는 어떤 어려움이 없습니다. 가장 친밀하고, 가장 믿을만하고 언제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아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아빠, 아버지! 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빠, 아버지께 부르짖으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영원히 안전합니다.

또 한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상속자가 되는 축복.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곧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는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죠. 아버지의 것은 자녀의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상속자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 ‘나는 고난 받기 싫는데, 상속도 안 받을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나요? 이걸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지금은 가치 있어 보이지만 무가치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상속받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영원한 것이며,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 초라한 삶을 살게 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광을 소망함으로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면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잊지 말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 되길 바랍니다.

은혜선포

서로를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스스로에게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예요.”

우리가족 신앙스토리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읽고 함께 나누어봅시다.

1. 당신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고 있나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았던 은혜가 있다면 나누어봅시다.
2.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고난도 함께 받을 각오가 되어있나요? 당신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족미션

매일 기도시간을 정하여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해봅시다.